

종단

한국불교
종단 70년

격랑의 시대 넘어 일신한 한국불교

1945년 8월15일 오후 2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 항복 선언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한국에게 광복의 기쁨과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장미빛 환상'은 오래 가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38선을 설치하고 남북을 분단시켰고 오래지 않아 한반도는 좌우 대립의 갈등에 몰살을 앓았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저서인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에서 "해방공간의 불교는 한국 근대불교와 현대불교의 가교 역할을 한 무대이자 연결고리"라면서도 "근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향으로 가려했던 현대불교는 해방공간에서 운명적으로 만났다. 하지만 그 만남은 화해와 상상이 아닌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불교는 격랑의 근현대사 속에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광복 이후 중정 한암 스님과 종무총장 지암 스님은 자진 사퇴했으나 교단을 인수한 지도부는 주로 대처승이었다. 대처승 지도부는 교단의 개혁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안주했다.

그러던 중 성철, 청담, 자운 스님 등은 한국불교 혁신을 위한 결사를 시작한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오로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정신으로 '공주(共住)규약'을 정하고 이를 따라 실천하는 스님들만 방부를 같이 정진했다. 처음엔 성철, 자운, 보문, 우봉, 청담 스님으로 시작해 황곡, 월산, 해암, 법전, 성수, 종수, 지관 스님 등 20여 명으로 늘었고, 비구니 묘엄, 묘찬, 지영, 재영 스님 등은 백련암에서 참여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종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난한 갈등 끝에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고 다양한 종단들이 만들어졌다. 조계종과 뿌리는 같으나 분리해 만들어진 태고종이 있으며, 천태종·진각종·관음종 등 주요 종단들이 성장되거나 새롭게 창종됐다.

정화운동과 조계종 출범

1949년 6월에는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1950년 3월에 그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자경농의 농지 소유를 원칙으로 한 유상매수와 유상분배가 이뤄졌다.

당시 종단인 '조선불교'의 교정이었던 만암 스님은 수행승들의 생활과 수행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54년 4월 비구승들에게 전통사찰 18개를 내준다는 방침을 정하였지만 대처 주지들의 반대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이즈음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지지 담화가 발표되었다. 즉 1954년 5월 사찰 내에서 대처승을 축출하라는 대통령 유시가 내려졌고 이후 1962년 4월까지 8년에 걸쳐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났다. 선학원을 중심으로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 전국비구승대회가 개최되고 비구승 중심의 교단을 만들려는 중현 제정, 공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응적인 교단의 다수 구성원인 대처승들은 이 같은 정화에 반대했다.

결국 정화운동은 자주적인 변화보다는 공권력이 개입된 가운데 이뤄졌고, 1955년 8월 12~13일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비구승 종단이 성립됐다. 이 대회 이후 교단의 운영권과 전국 사찰의 운영권이 비구승으로 넘어 갔다. 그러나 대처승은 이에 불복하고 법정 공방으로 확산됐다.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자 대처승 측은 비구 측을 관제 불교로 규정하고 사찰령 규제의 철폐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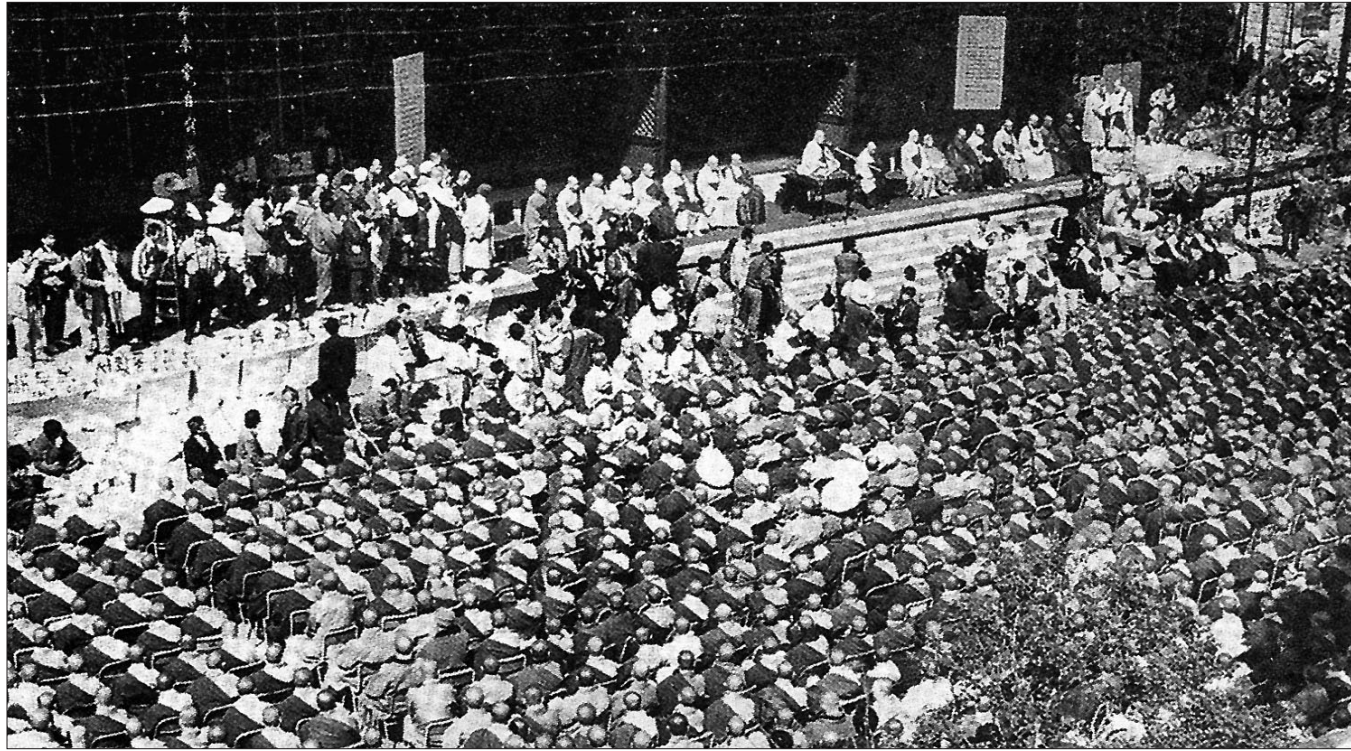
장했다. 당시 대처 측의 사찰 재진입과 이를 막기 위한 비구 승려의 항복 기도와 법원 난입 사건 등이 터지면서 사회문제로 크게 비화되기도 했다.

1961년에는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권은 비구 측과 대처 측 어느 쪽도 한국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자율적으로 불교를 재건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비구와 대처 양측이 참여해 합의를 이뤘고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하게 됐다.

이 같은 시대 상황에 대해 김용태 동국대 HK교수는 본지 칼럼을 통해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일어난 불교정화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비구승 중심의 수행 및 계율 전통 회복이라는 불교적 가치의 표면에 내세운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독교 우위 정책에 입각하여 정치적 반대파가 된 불교계 실제 대처 주지들을 제거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시련과 개혁의 역사

새롭게 출발한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의 재정비와 현대화를 추진하여 20세기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도제양성 △역경 △포교의 3대 지표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역경원을 설립하여 팔만대장경의 완역을 추진했고 도제양성을 위해 전국 주요 사찰에 총림을 설치해 선원과 강원, 율원을 세웠다. 또한 1980년대에 총무원 산



1994년 4월 13일 개최한 범불교대회. 기존 종회의 권한을 개혁회의에 이양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을 상징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모습



1962년 1월 22일 열린 비구·대처승 양측 대표모임. 불교재건회의 앞서 열린 회의에서 대표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08년 불교 최초 모교전문기관 아름다운동행 출범식 모습. 절곡의 역사를 넘어 불교는 자비나눔과 사회실천의 종교로 거듭나고 있다.

해방공간 속 '정화·개혁' 화두

갈등 거쳐 통합종단 출범

1970년 대처승 태고종 분리

천태종·진각종 등 종단 출범

종단협 창립... 불교 발전 도모

신생종단 난립 상황 대책 필요

하에 포교원을 설치해 포교에 전담하도록 했다.

1962년 5월에는 사찰령을 계승한 불교 재산관리법이 통과되고 그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재산 관리 뿐 아니라 불교 단체 등록 및 운영을 국가에서 관리·감독하게 된다. 또한 1969년 정부가 국립공원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야산 해인사와 지리산 화엄사 등 종단 사찰의 재산을 아무런 협의나 보상 없이 국립공원 주요 부지로 지정했다. 당시 해인사 방장 성철 스님은 "사찰은 신성한 수도도량으로 국민관광지가 되면 국민정신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시행했다. 이 같은 국립공원제도는 2000년 이후까지 관

람포 문제 등을 야기시키며 정부와 마찰을 빚게 한 단초로 자리잡았다.

1980년에 들어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 10월 27일 새벽에 전국 3천여 사찰에 계엄군이 진입해 강압적인 수색을 하고 총무원장을 비롯한 주요 사찰 소임자 스님들을 불법 구금하는 10.27법난이 일어났다.

수사 주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수사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었다. 합동수사단은 불교계 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1980년 10월 27일에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3명을 감제로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31곳을 대한민국 국

군과 경찰 병력 3만 2천여 명을 투입해 수색했다. 당시 무차별 폭력과 고문이 자행됐고 일부는 삼척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했다. 2008년 3월 '10·27법난에대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이 현재와 같은 현대적 시스템을 갖춰나간 것은 1994년 개혁 이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3선 연임을 강행하자 대중의 반발이 일어나 종정과 총무원장이 같이 퇴진하고 종단제도 개혁이 추진됐다.

당시 종원과 종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총무원장 선출을 선거인단의 간선제로

신비한 운명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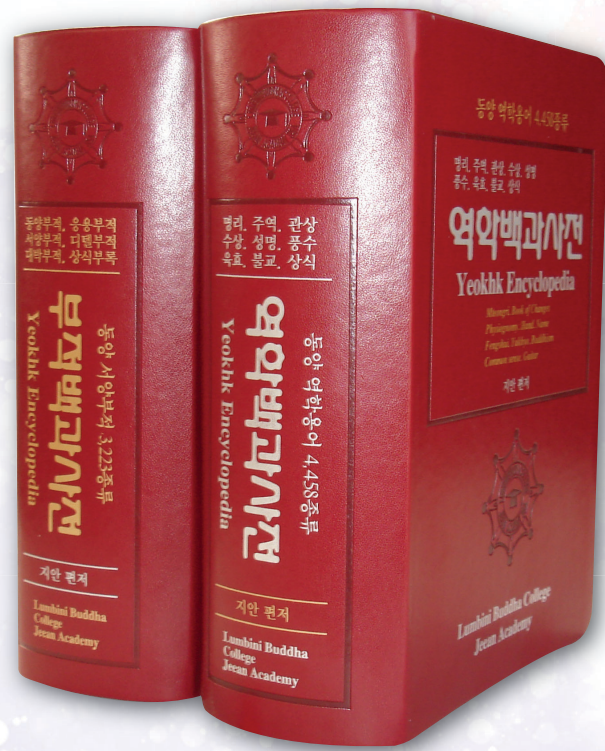
동·서양부적 총 집대성



부적백과사전

- 제1편-육십갑자신묘부적·안전제해예방부·삼재소멸부·복약효력부
- 제2편-만사형통부·만사형통남사주부·개운팔진양둔팔부·천신통령부
- 제3편-물고기자리부·영문형 희란야·서양주술행복양부·서양주술화합결합부
- 제4편-사랑부적·재물금전부·학업진학부적·고사개업부적·자식임신부적
- 링타리사만부적
- 제5편-대박추첨일부적·희란야성취12지부·사업번영부적 부록 : 사주 해인도

미국역사사 자격증 과 신문증



동·서양부적 3,223종 ● 동양역학영어 4,458단어

역학인의 필독서

동양의 역리학 음양오행은 우주 자연 섭리에 따른 진리의 학문이요 우리 삶의 이정표이며 생활의 지표이다.

역학백과사전

가취대흉일(嫁娶大凶日)·가취월(嫁娶月)·갑경충(甲庚沖)·나경(羅經)·오행(五行) 박환(剝換)·마장격(魔障格)·단명상(短命相)·사자자리Lee·양류목(楊柳木) 육효(六爻)·흉궁(胸宮)

특혜 동행오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미국사회단체법인 미국동양철학 교사자격협회(Aug. 15, 2013)에서 동양역학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격증신청 : 책 구입처(주문업체)에 여권용 컬러사진 1장, 신상명세서(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해 주시면 발급과정을 거쳐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불교상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도서출판 아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